

'재량사업비 비리' 핵심인물 입열어

핵심 브로커 모 인터넷언론매체 전 본부장 김 모씨 공사업체 3곳서 2억5000만원 챙겨... 수사 급물살

'도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재량사업비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이 핵심브로커로 꼽히고 있는 모 인터넷언론매체 전 본부장 김 모(54,남)씨의 증언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실시된 태양광시설, 배관설비, 의뢰기기 등 공사업체 3곳에서 2억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아 구속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전, 현직 전북도의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재량사업비로 실시된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 대표 3명 역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조사결과 핵심브로커 김씨는 업체들을 상대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테니 매출액의 40% 가량을 달라"며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전부터 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의 친분을 자랑하며 일감 수주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혐의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씨가 입을 열게 됨에 따라 수사가 급진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재량사업비는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내 민원 해결이나 중요사업을 추진하



레저기구 초보 활동자 '주의'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레저기구 사고의 대부분이 초보 운항자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며 3년 미만의 초보 활동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표류 중인 레저보트를 해경이 구조하는 장면.

기 위해 특정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일정액을 배분해온 사업예산을 말한다.

시, 군의원들의 경우 지자체 규모에 따라 약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을 재량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전북도의원의 경우 1인당 5억 5000만원 상당의 큰 금액이 재량사업비로 책정돼 있다.

이러한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중요

사업 처리에 이용하기보다 경로당 가전제품 바꿔주기 등 본인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선심성 사업에 사용하는 의원들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선거철에는 소속당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주민센터 등을 찾아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물품을 제공하며 여러 가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재량사업비 편성 과

정에서 의원과 업자 간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왔지만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씨가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핵심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가 구속된데 이어 입을 열게 되며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기자

'부안여고 성추행' 경찰수사 일단락

교사 1명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검찰 송치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수사가 일단락되고, 체육교사 외에 교사 1명이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안여고 교사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체육교사 B(51)씨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지난 6월 2일과 지난달 7일 경찰이 부안여

고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서 앞서 검찰에 송치된 체육교사 외에 성추행 의혹을 받은 2명의 교사 중 한명으로 40여명의 피해학생 중 다수가 체육교사 외에도 A씨의 범행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위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보다는 정신적 학대행위에 가깝다며 앞서 송치된 체육교사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을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11일까지 2200명

전주시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2,200명을 추가 모집한다.

참여자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으로, 선발된 어르신들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간 주 3회 하루 3시간씩 근무하며 매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또한 노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 수행기관에서도 동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2318), 완산구청(063-220-5340), 덕진구청(063-270-6341),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완산구,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수강생 모집

전주시 완산구는 하반기 여성 직업능력 개발교육 수강생을 1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전주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은 완산구 거주 여성 중 저소득층 여성을 우선 선발해,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물론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실제 창업과 취업의 기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코딩게임놀이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1급, 진로코칭&안정관리지도사, 책놀이지도사 2급 등 4개 과정에서 55명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전문교육기관인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전문 강사진의 지도 아래 9월부터 12월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및 문의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232-2346~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재용 기자

실습한 어린이집 차량 훔쳐 타고다닌 대학생 2명 입건

자신들이 실습했던 어린이집의 차량을 훔쳐 타고다닌 대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일 특수절도의 혐의로 대학생 A(20,남)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33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어린이집에 들어가 7만원 상당의 공구기방과 차량 열쇠를 훔쳐 차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린이집이 운영하지 않는 밤시간대를 이용해 열쇠를 훔쳐 차량을 타고 다닌 뒤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차량을 불법 사용했다. /이상민 기자

여름 휴가철, 전주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로

전주시, 주요 구간 차량 진입 전면 통제 6일까지 연장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여름방학과 휴가철 등 관광성수기를 맞아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1주일 동안 한옥마을 전 구역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시는 기존 주말에만 운영해 온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를 여름 성수기에 평일까지 확대, 한옥마을 주요 구간 11개소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옥마을 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전면통제할 계획이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기존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차량 진입

이 통제된다.

당초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집중호우 등 장마로 인해 운영기간을 1주일 연기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한옥마을 내 차량 증가 여부를 판단해 차 없는 거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번 차 없는 거리 운영 결과를 토대로 추가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한옥마을 내 혼잡과 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관광객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8년 한옥마을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으며, 지난

2015년 3월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이면 한옥마을 전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한옥마을 내 차량진입이 통제되면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한옥마을 관광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교통 혼잡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해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여건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전주한옥마을만의 특색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여름 휴가철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전주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중화장실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관내 공중화장실 174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고장과 편의용품 미비지, 전구고장 상태 및 대소변기, 세면대 등 청결상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매일 4회씩 공중화장실 내외부를 청소하고, 매주 3회 소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제점검 기간 공중화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